



한국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

-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최근 공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46개국 중에서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59위 였다.
- ▶ 행복지수는 나라별로 1,000명의 시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묻은 갤럽의 월드 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삶의 선택 자유, 관용, 부정부패 6가지 항목의 3년 치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다.
- ▶ 올해 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였고,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3위) 등 1-3위가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16위였으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54위, 중국은 72위에 올랐다.
- ▶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146위)는 '아프가니스탄'이었고,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중동의 '레바논'이 각각 144위, 145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그림] 세계 vs OECD 행복지수 (2019~2021)

세계 행복지수 순위 (146개국)			OECD 행복지수 순위(38개국)**		
<상위 10위>	<주요국가>	<하위 10위>			
1.핀란드	16.미국	137.잠비아	1.핀란드	14.독일	27.에스토니아
2.덴마크	26.대만	138.말라위	2.덴마크	15.캐나다	28.라트비아
3.아이슬란드	54.일본	139.탄자니아	3.아이슬란드	16.미국	29.칠레
4.스위스	59.한국	140.시에라리온	4.스위스	17.영국	30.멕시코
5.네덜란드	72.중국	141.레소토	5.네덜란드	18.체코	31.폴란드
6.룩셈부르크		142.보츠와나	6.룩셈부르크	19.벨기에	32.헝가리
7.스웨덴		143.르완다	7.스웨덴	20.프랑스	33.일본
8.노르웨이		144.짐바브웨	8.노르웨이	21.슬로베니아	34.포르투갈
9.이스라엘		145.레바논	9.이스라엘	22.코스타리카	35.그리스
10.뉴질랜드		146.아프가니스탄	10.뉴질랜드	23.스페인	36.한국
			11.오스트리아	24.이탈리아	37.콜롬비아
			12.호주	25.리투아니아	38.터키
			13.아일랜드	26.슬로바키아	

*자료 출처 :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2022 세계 행복보고서', 2022.03.18.(146개국 대상)

**총 146개국 중 OECD 국가(38개국)의 순위를 기재함.